

# 대학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과 발전목표의 동형화 현상 연구

김훈호(金訓鎬)\*  
신철균(申鐵均)\*\*  
오상은(吳祥垠)\*\*\*  
최혜림(崔惠林)\*\*\*\*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국내 126개 4년제 일반 종합대학의 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과 발전목표의 특성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2011년 현재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게시된 각 대학의 발전계획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비전 및 발전목표에 ‘글로벌’이나 ‘국제화’, ‘세계화’ 등과 같은 어휘들을 사용하는 대학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국내·외 대학 순위평가의 국제화 역량 지표, 생존 전략 차원에서의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결합된 복합적 동형화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대학들의 비전 및 발전목표에는 상대적 지위나 순위목표를 의미하는 어휘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순위평가 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내·외 대학 순위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순위 목표를 대학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발적 노력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재육성’ 어휘들은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에서 자주 출현하는데, 이들의 인재상은 ‘글로벌 인재’나 ‘실무형 인재’, ‘창의형 인재’ 등으로 동형화 되고 있다. 넷째, 국내 많은 대학들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성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다양한 특성화 유도 정책과 학생 유치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이 결합된 복합적 동형화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발전계획과 그 안에 포함된 비전 및 발전목표는 대학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도입된 하나의 제도이지만, 실제 대학 내에서는 제도와 운영, 비전과 목표 사이에 부정합화 현상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대학발전계획, 비전, 발전목표, 동형화, 글로벌, 순위목표, 인재상, 특성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제1저자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교신저자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6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교 입학정원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그 격차가 12만 7,000명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대학교구조개혁위원회, 2011).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국내 대학들에게는 입학생 수 감소가 그대로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대학들이 체감하는 위기의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며, 향후 전개될 대학 간의 학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송기동, 2010; 박영기, 2008). 더욱이 정부는 대학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8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래, 2003년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2004년 대학 구조개혁 방안, 2009년 부실 사립대 퇴출 및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방안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이용균·이기성, 2010), 2011년에는 대학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일률적 균등배분 방식'에서 '평가에 기반 한 선별적·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신정철 외, 2009), 대학 간 재정보호 경쟁도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대학 간 경쟁 유도과 다양성 및 특성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평가에 기반 한 재정지원 사업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이처럼 국내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서 위기의 돌파구를 찾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4년에 발표된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 이후 국내 대학들의 자발적인 발전계획 수립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경현, 2011; 허민, 2011; 윤석만, 2010; 박종렬, 2007; 김형석, 2005; 윤석이, 2005).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박종렬, 2007).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안에 제시된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을 중심으로 대학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정보공시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 정보공시법에 따르면, 국내 모든 대학들은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결과를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의무적으로 수립되는 발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박영기, 2008). 정보공시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고, 발전계획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항목에 포함될 경우, 일부 대학들은 발전계획 수립을 일종의 의무사

항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실천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채우는데 급급한 대학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의 발전계획을 검토한 김성국(2007)은 분석 대상 대학들의 비전과 전략에서 ‘글로벌’, ‘창조적’, ‘선진화’, ‘침단’ 등의 어휘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전계획 수립의 의무화 이후 대학 간 상당한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 그리고 박종렬(2007)은 다른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상위 목표를 하위 목표에 그대로 복사하는 관행이 지속될 경우, 국내 대학의 발전계획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런데 대학발전계획이나 그 안에 담겨 있는 비전 및 발전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학들 간의 차이나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학발전계획의 필요성이나 수립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김성국, 2007; 박종렬, 2007, 박영기, 2008), 대학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현황을 분석하는 수준(이현청·나민주, 1997)에 그치고 있다. 국내 대학의 발전계획 실태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언론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주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동향을 간단히 제시하고, 각 대학발전계획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대학발전계획의 한계점들을 지적하고 있다(김현석, 2003; 김형석, 2005; 윤석이, 2005).

그 동안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대학들의 발전계획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8년 이전에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 자체가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정보공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국내 모든 대학들의 발전계획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대학들의 발전계획을 살펴보고, 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발전목표가 갖는 구체적인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국내 대학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Dimaggio & Powell(1983)을 비롯한 많은 조직론 연구자들이 밝혀낸 사회의 동형화(isomorphism) 현상에 비추어, 국내 대학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진술에 나타날 수 있는 동형화 현상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대학발전계획은 대학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객관적 지표로서의 ‘목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과제’ 등으로 구성된다

(박영기, 2008). 이 중 발전계획의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비전'은 조직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조직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김성국, 2007; 박영기, 2008; 신유근, 1992). 이러한 비전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미래상에 대한 공통된 열망을 갖도록 하고, 조직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줌으로써, 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을 제공한다(Hill, 2000). 그리고 '목표'는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행위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박종렬, 2007; 박영기, 2008),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결정해 주고, 조직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조직 내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Locke, 1968).

대학발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Peters & Waterman, 1982; 유민봉, 2010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 비전은 발전계획의 전부를 함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고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목표는 실천에 직결되는 행동용어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종렬, 2007; 박영기, 2008). 그리고 비전을 바탕으로 목표가 제시되는 바, 이들 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박홍운, 2007).

또한 발전계획이 각 대학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담고 있어야 한다(김성국, 2007).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자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한 비전과 목표가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대학발전계획이 실효성 있는 대학의 생존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 및 목표가 대학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외적 차별성'과, 양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내적 연계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 2. 대학의 유형화

최근 산업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차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교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직업은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이며, 전문화된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학력 및 학벌 위주의 평가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학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 또한 보다 다양화되는 추세이다(이현청 외, 1996).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대학의 다양화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대학 역할의 미분화와 질적 재구조화 노력의 미흡으로 인해 여전히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 지적도 없지 않다(대학구조개혁위원회, 2011). 따라서 고등교육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다양화'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들이 먼저 도출되어야 하며(Moody, 2009),

유사한 특성을 갖는 대학을 군집화하고 복잡한 고등교육 체계를 보다 명료화함으로써 각 유형의 대학들이 갖는 특성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대학 ‘유형화’(classification)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Bailey, 1994).

대학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의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카네기재단의 대학 유형분류와 중국 상하이 자이퉁 대학의 분류, 국제교육 표준분류 등이 있다(신현석, 2008). 국내의 유형화 연구 중에는 삼성경제연구소(류지성 외, 2006)의 대학 유형분류와 교육인적자원부(2005)의 분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신현석, 2008)의 분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유형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대학의 기능(교육중심/연구중심)과 교육의 수준(학부중심/대학원중심), 학문의 범위(종합분야/집중분야), 지역적 범위(전국기반/지역기반) 등 각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최종적인 대학의 유형 분류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1> 대학 유형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

모형	분류 기준				분류 유형
	대학 기능	교육 수준	학문 범위	지역 범위	
국 외	카네기 재단	○	○	○	- 연구중심대학(대규모 박사) - 석사학위 중심대학(I/II) - 준학사학위대학
	상하이 자이퉁 대학	○	○		- 연구중심대학(I/II) - 석사학위 중심대학(I/II) - 준학사학위대학
	국제교육 표준분류		○	○	- A유형 고등교육 - 전문연구 프로그램
국 내	삼성경제 연구소	○		○	- 연구중심 종합학문분야(전국/지역) - 교육중심 종합학문분야(전국/지역)
	교육인적 자원부	○		○	- 연구중심대학 - 교육연구병행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 특성화 주도권에 따른 분류 - 국책형 - 자율형

※ 출처: 신현석(2008), 이수정·심현기(2010)

미국 카네기재단의 분류는 연간 학위 배출 분야 및 학생 수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능과 교육의 수준, 학문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분류 유형을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는 미국 대학을 유형화 한 것으로 한국 대학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하이 자이퉁 대학의 분류는 연구중심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구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구중심대학 이외의 대학들은 수여하는 최종 학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분류방법 모두 대학의 기능과 교육수준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나, 분류 기준을 대학에서 수여하고 있는 최종 학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에 주목하여 각 대학별 발전계획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대학 유형 분류가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정부가 대학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5)는 특성화의 혁신 주체 및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대학을 분류하고 있다. 대학의 기능이나 특성에 따른 분류라기보다, 대학 특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대학을 분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5)의 유형 분류는 대학의 기능과 학문의 범위를 기준으로 국내 대학들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몇 개의 대학만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 국내 대학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2005)의 유형 분류는 국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의 기능과 학문 영역에 따라 연구중심과 준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대학을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카네기재단의 대학 분류 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학의 논문 수와 박사과정 재학생 수, 정부 재정지원 규모, 특성화 유형 등의 실증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내 대학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분석 방법이나 자료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들이 각각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분류 기준이 대학의 발전방향 및 추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는 점(신현석, 2008) 등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이러한 대학 유형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각 유형에 따라 대학발전계획의 비전 및 발전목표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 3.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동형화 현상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의 구조나 형태가 비슷해지는 현상을 ‘동형화’의 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DiMaggio & Powell(1983)은 동형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강제적(coercive) 동형화와 모방적(mimetic) 동형화, 규범적(normative) 동형화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강제적 동형화는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공식적·비공식적 압력 또는 조직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대에 의해 조직형태가 하나의 형태로 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제적 동형화는 주로 정당성과 권위를 가진 조직의 합법적인 권력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데, 정

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규제적 지침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개별 조직들은 이러한 합법적인 외부의 압력이나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일률적인 조직의 대응은 동형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별조직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게 된다. 단, 강제적 동형화를 일으키는 요소에는 정부의 공식적 압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비영리기관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도 포함된다(하연섭, 2011; 장덕호, 2009).

모방적 동형화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조직에 대한 개별 조직의 자발적 모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방적 활동은 주로 심리적 동조현상과 설득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나타나게 된다(유호현, 2010).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나 판단을 달리할 때 개인은 흔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다수의 생각에 맞추는 동조(conformity)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른 조직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자신만 하지 않는다면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조직의 적극적인 모방을 이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유도하고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다 우수한 조직 혹은 먼저 갈등 과정을 겪은 조직의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른 국가나 조직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별 조직의 노력들은 모방적 동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규범적 동형화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사회의 가치가 조직 간 동질화를 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의 규범은 초·중등 교육이나 대학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학술단체나 조직연합체 등과 같은 전문 단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 등을 통해 생성되고 강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규범적 동형화는 구체적인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조직이나 개인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추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와 미국식 경영 이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성과에 기반 한 연봉제가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 체계를 빠르게 대체해 나간 사례(유호현, 2010)나,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이를 위한 대학의 다양한 노력 등은 규범적 동형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동형화의 관점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한준·김도희(2005)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환경의 변화가 이들 대학원의 확산 및 운영 과정에 동형화 현상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연섭(2011)은 대학의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강제적 동형화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장덕호(2009)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확산, 제도화 과정 등을 동형화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 틀

대학은 정부의 압력이나 사회의 기대, 사회적 규범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비전과 발전목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다 상위권 대학이나 경쟁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 및 발전목표를 안전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모방적 동형화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대학들은 이러한 외부의 제도적 압력과 내부의 모방적 욕구를 반영하여 비전 및 발전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행위를 ‘외적인 표현’과 ‘내용 및 내적 연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분석 틀

‘표현’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나 어휘의 빈도에 해당하며, ‘내용 및 내적 연계’는 비전과 발전목표 진술문에 담긴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와 양자의 연계성을 의미한다(정명은 외, 2009). 분석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제도는 보통 사회의 필요나 요구, 공식·비공식적 압력, 조직의 생존 등을 위해 도입되지만, 제도와 실질적인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 즉, 부정합화(decoupling)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Meyer & Rowan, 197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비전 및 발전목표에 나타나는 ‘형식으로서의 외적인 표현’과 ‘내용으로서의 구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비전 및 발전목표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형식’과 ‘내용’ 간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국내 대학들의 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발전목표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전과 발전목표가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홈페이지<sup>1)</sup>에 게시되어 있는 국내 각 대학들의 2011년 발전계획을 수

1)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academyinfo.go.kr>



집하여 사용하였다. 2007년에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모든 대학들은 2008년 5월 26일부터 대학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여건 등에 관한 주요정보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대상은 총 13개 분야 57개 항목으로, 여기에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교육과학기술부, 2011b)와 2010년 대학특성화 종합정보 시스템 자료입력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2010c)에 따르면, 매해 각 대학에서 수립된 발전계획을 대학특성화 종합정보 시스템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 정보는 검증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알리미에 공개되어 있는 대학 발전계획의 정확성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발전계획과 비전 및 발전목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였다.

대학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분석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일반 종합대학과 성격을 달리하는 신학대학과 승가대학, 가톨릭대학, 외국어대학, 단일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126개의 4년제 일반대학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 3. 분석방법

국내 4년제 일반대학의 발전계획에 제시된 비전과 발전목표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비전 및 발전목표의 분석 틀

분석방법	하위 분석방법	분석내용
1. 비전 분석	빈출 어휘 분석	· 발전계획의 비전에 포함된 어휘의 빈도분석 / 대학 유형별 비교
	어휘군 분석	· 비전에 포함된 어휘를 내용에 따라 유목화 / 대학 유형별 비교
2. 발전목표분석	빈출 어휘 분석	· 발전계획의 발전목표에 포함된 어휘의 빈도분석 / 대학 유형별 비교
	발전목표 진술 방식	· 발전목표 진술 방식 분석 / 대학 유형별 비교
3. 비전과 발전목표의 연계성 분석		· 비전 어휘와 발전목표 어휘 간 교차분석 · 비전과 발전목표의 연계성 분석

첫째, 각 대학의 비전에 사용된 어휘들을 살펴보고, 각 어휘들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어휘들을 기본 분석 단위로 사용하였으며, 비전 진술문 상의 조사나 부사, 형용사, 동사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특성화를 통한 국내 상위권 대학 진입’이라는 비전 진술문의 경우, ‘특성화’와 ‘국내 상위권 대학’이라는 의미 단위로 어휘를 구분하였다. 비전 진술문에서 어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코딩하는 작업은 세 명의 코더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26개 대학의 비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핵심이 되는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유형에 따라 비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전 진술 어휘의 빈도분석 결과를 대학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대학의 유형 분류를 위해 카네기재단의 대학 유형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국내 대학을 분류한 교육인적자원부(2005)의 대학 유형 분류표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대학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대상 대학들의 유형별 분포

(단위: 대학 수, %)

구분	연구중심대학	준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병행대학	교육중심대학
대학명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기톨릭대, 강원대, 경상대, 경희대, 부경대, 서강대, 세종대, 아주대, 영남대 등	강릉원주대, 건국대, 계명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대구대 등	가야대, 강남대, 건동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강원대 등
대학 수(%)	9 (7.1)	16 (12.7)	28 (22.2)	73 (57.9)

※ 분류기준: 교육인적자원부(2005).

그리고 비전에 사용된 어휘들을 내용에 따라 유목화하고, 대학의 유형에 따라 비전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어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비전 진술에 사용되는 어휘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휘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비전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은 보통 1개의 간단한 문장이나 어구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용된 개별 어휘의 빈도가 비교적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비전에 사용된 어휘들을 의미 단위로 유목화 하여 살펴보는 것이 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비전은 각 대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구체화된 표현으로서(박홍운, 2008; Warren 1994),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철학과 핵심 가치 등을 내포하고 있다(박홍운, 2007; Bryson,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세 가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연구, 봉사에 초점을 맞추어 각 대학의 비전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다만, 세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간 상대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분류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어휘 내용을 분류하는 이러한 과정은 세 명의 코더들

에 의해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발전목표에 대한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각 대학의 발전목표에 사용된 어휘들의 빈도를 살펴보고, 대학 유형에 따라 발전목표를 구성하는 어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의 발전목표는 보통 1-5개 정도의 어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술 방식에 따라 1개의 단일 목표를 제시하는 유형과 2개 이상의 발전목표를 병렬 혹은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전목표에 대한 분석에서는 어휘에 대한 빈도분석 외에, 발전목표를 진술하고 있는 방법이 대학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목표 진술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였다.

셋째, 비전과 발전목표에 사용된 어휘들의 관계를 통해 양자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비전 진술문에 사용된 어휘들 중 15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만을 대상으로, 발전목표에 주로 어떠한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비전과 발전목표의 연계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다만, 이상의 분석은 비전과 발전목표에 진술된 어휘들의 빈도분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전과 발전목표 진술문 원문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교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비전 분석

#### 1) 비전분석에 사용된 어휘 목록

126개 분석대상 대학의 비전 진술문에 나타난 주요 어휘를 정리한 결과 모두 111개가 나타났다.

&lt;표 4&gt; 비전 분석에 사용된 어휘 목록

분석용어	실제 비전에 사용된 어휘	분석용어	실제 비전에 사용된 어휘
글로벌	글로벌, 세계를 향한, 세계 속, 세계화, 국제화 등	인재육성	인재육성, 전문인 육성, 글로벌시티즌, 비전인, 전문인력 육성, 사람을 세우는 (대학) 등
세계적 수준	세계적 수준, 세계 최고, 세계 00위권, 아시아 최고, 아시아 TOP, world class	명문대학	명문대학, 최고대학, the best, 일류대학
교육중심	교육중심, 교육기반	선도대학	선도대학, 선진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
실무중심	실무중심, 실사구시, 실용, 실용지식, 실용적 진리탐구, 직능별, 취업중심	리더양성	리더양성, 리더십 시티즌 양성, 지도자 양성
국내최고 수준	국내 최고(상위권) 수준, 국내 00위권, 국내 사학 TOP 30, 중규모 TOP 10	지역거점 대학	00지역 최고, 지역 공동체의 중심, 부산 거점대학, 세계 속 지역대학 등
특성화	특성화, 복지특성화, 지식기반신산업 특성화, IT중심 대학	연구중심	연구중심

그러나 이들 단어나 어휘들 중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어휘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표 4>에 정리된 것처럼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휘들을 하나로 군집화 하였으며,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나 어휘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할 ‘분석어휘’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비전 분석을 위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단어나 어휘는 총 37개였다. <표 4>는 빈도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2개의 대표 어휘와 해당 어휘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어휘들을 정리한 것이다.

## 2) 비전에 사용된 어휘 분석

국내 대학의 비전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비전 진술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어휘는 ‘글로벌’이었다. 126개의 분석대상 대학 중 52개 대학(41.3%)의 비전 진술문에서 ‘글로벌(국제화, 세계화, 세계 속)’이라는 어휘가 등장하였으며, 연구중심(33.3%)이나 준연구중심(37.5%) 대학보다 교육연구병행(46.4%)이나 교육중심(41.1%) 대학의 비전에서 조금 더 자주 등장하였다.

교육연구병행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들의 경우, ‘글로벌’ 어휘들은 ‘인재육성’ 어휘들과 결합되어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내용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인재육성’ 어휘는 분석대상 대학 중 45개 대학(35.7%)의 비전 진술문에서 사용되었으나, 교육연구병행 대학(46.4%)과 교육중심 대학(41.1%)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연구중심 대학 중에서는 ‘인재육성’을 언급하고 있는 대학이 전혀 없었으며, 준연구중심 대학도 16개 대학 중 2개 대학(12.5%)만이 ‘인재육성’ 어휘를 포함하고 있었다. ‘교육중심’이나 ‘특성화’ 어휘 또한 교육연구병행이나 교육중심 대학에서 일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 연구중심이나 준연구중심 대학 중에서는 한 곳도 사용되는 곳이 없어 대조를 이루었다.

반면, 비전 진술문에 '세계적 수준'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은 주로 연구중심 대학(66.7%)이나 준연구중심 대학(56.3%)이었다. 특히, 비전에 '연구중심'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3개의 연구중심 대학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이 되고자 하였다.

<표 5> 국내 대학의 비전에 사용된 어휘 분석

(단위: 대학 수, %)

구 분	대학 유형				계	
	연구중심	준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		
글로벌	3 (33.3)	6 (37.5)	13 (46.4)	30 (41.1)	52 (41.3)	
인재육성	0 (0.0)	2 (12.5)	13 (46.4)	30 (41.1)	45 (35.7)	
세계적 수준	6 (66.7)	9 (56.3)	3 (10.7)	4 (5.5)	22 (17.5)	
명문대학	2 (22.2)	0 (0.0)	4 (14.3)	15 (20.5)	21 (16.7)	
교육중심	0 (0.0)	0 (0.0)	2 (7.1)	13 (17.8)	15 (11.9)	
비전에 사용된 어휘	선도대학	0 (0.0)	3 (18.8)	6 (21.4)	6 (8.2)	15 (11.9)
실무중심	0 (0.0)	3 (18.8)	0 (0.0)	12 (16.4)	15 (11.9)	
국내 상위권 대학	1 (11.1)	2 (12.5)	1 (3.6)	9 (12.3)	13 (10.3)	
리더양성	1 (11.1)	1 (6.3)	3 (10.7)	6 (8.2)	11 (8.7)	
지역거점대학	0 (0.0)	2 (12.5)	2 (7.1)	6 (8.2)	10 (7.9)	
특성화	0 (0.0)	0 (0.0)	1 (3.6)	9 (12.3)	10 (7.9)	
연구중심	3 (33.3)	0 (0.0)	0 (0.0)	0 (0.0)	3 (2.4)	
전체 대학 수	9	16	28	73	126	

그런데 대학 간 상대적 지위나 순위에 대한 관심은 연구중심이나 준연구중심 대학에 한정되지 않았다. 국내 대학의 비전에 포함된 상대적 지위 관련 어휘들은 '세계적 수준'과 '선도대학', '국내 상위권 대학', '지역 거점대학' 등이라 할 수 있다. 비전 진술문에 이들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은 126개의 분석대상 대학 중 54개 대학(42.9%)이었다. 이를 대학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연구중심 대학(66.7%)이나 준연구중심 대학(62.5%)일수록 상대적 지위나 순위 관련 어휘를 보다 자주 사용하였으나, 교육연구병행 대학(32.1%)과 교육중심 대학(39.7%)들의 사용 비율도 30% 이상으로 적지 않았다.

&lt;표 6&gt; 비전에 대학의 상대적 지위와 관련된 어휘를 사용한 대학

(단위: 대학 수, %)

구분	연구중심	준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	계
사용 대학 수	6 (66.7)	10 (62.5)	9 (32.1)	29 (39.7)	54 (42.9)
전체 대학 수	9 (100.0)	16 (100.0)	28 (100.0)	73 (100.0)	126 (100.0)

다만, 국내 대학들은 대학 유형에 관계없이 상대적 지위나 순위를 의미하는 어휘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달하고자 하는 지위나 순위의 수준이 대학 유형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중심 대학이나 준연구중심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 대학을 지향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연구병행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들은 국내 '명문대학'이나 '선도대학', '국내 상위권 대학' 등과 같은 어휘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 3) 비전의 내용

비전은 보통 하나의 어구나 문장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비전에 사용된 어휘들의 종류는 다양하였으나 개별 어휘들의 출현 빈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대학들의 비전이 갖는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전 어휘들을 분절화하기보다,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유목화하고, 이들 내용이 대학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대학의 비전을 <표 7>과 같이 네 가지 내용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lt;표 7&gt; 비전의 내용 유형 및 어휘들의 유목화 기준

비전의 내용	비전에 사용된 실제 어휘
대학의 특성 강화	교육중심, 국제화, 기독교 가치, 민족사학, 복지거점, 수요자중심, 실무중심, 연구중심, IT명문, 융합학문, 특성화, 평화공동체,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학생중심, 혁신적인 대학 등
대학의 사회적 역할	국가 혁신, 미래가치, 미래를 여는, 세상을 밝히는, 신지식, 21세기 대학발전 선도, 인류공영에 기여, 지식기반사회를 이끄는, 지역문화 창조, 지역공동체, 지역 혁신 등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국제전문인, 글로벌(글로벌) 리더(인재), 멀티플레이어, 세계화를 주도하는 인재, 실무형 인재, 여성인재, 융복합형 리더, 적소형 창의적 실용인재, 창의(창조)적 인재 등
대학의 상대적 지위	OO지역 최고의, 국내 최고의, 아시아 최고의, 세계적 수준의, 세계 최고의, 선도대학, 국내 OO위권 대학, 세계 OO위권 대학, Top, World Class 등

최초 연구자들은 대학의 비전을 교육, 연구, 봉사라는 대학의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전에서 연구를 강조하고 있는 대학들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를 분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교육이나 연구에 관련된 어휘들은 '대학의 특성 강화'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비전 진술문에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별도의 분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전에 사용된 어휘들의 빈도분석 결과에 나타난 각 대학들의 상대적 순위 및 지위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대학의 상대적 지위'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8>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의 특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5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의 상대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 42.9%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은 전체 분석대상의 14.3%에 불과하여, 국내 대학 중 대학의 봉사기능을 언급하고 있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국내 대학의 비전에 포함된 내용

(단위: 대학 수, %)

구 분	연구중심	준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	계	
대학의 특성 강화	5 (55.6)	8 (50.0)	12 (42.9)	41 (56.2)	66 (52.4)	
비전에 포함된 내용	대학의 사회적 역할	2 (22.2)	4 (25.0)	6 (21.4)	6 (8.2)	18 (14.3)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1 (11.1)	2 (12.5)	14 (50.0)	33 (45.2)	50 (39.7)
	대학의 상대적 지위	6 (66.7)	10 (62.5)	9 (32.1)	29 (39.7)	54 (42.9)
전체 대학 수	9	16	28	73	126	

이를 대학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대학의 특성 강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약 52.4%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많은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들을 비전에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전에 '대학의 상대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들의 비율(42.9%) 또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구중심 대학(66.7%)과 준연구중심 대학(62.5%)이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내용의 경우, 교육연구병행 대학(50.0%)과 교육중심 대학(45.2%)의 절반 정도가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연구중심 대학(11.1%)과 준연구중심 대학(12.5%)은 약 10% 정도의 대학만이 '인재육성'이나 '추구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교육중심 대학의 경우 그 비율이 8.2%에 그치고 있다.

요컨대, 비전 진술문에 나타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연구중심 대학과 준연구중심 대학들은 대

학 간 상대적인 지위나 순위에 보다 관심을 보이는 반면, 교육연구병행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들은 인재육성과 교육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들이 제시하는 인재상이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비전 진술문에 대학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 47개의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 중, 21개 대학이 ‘글로벌 인재’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실무형 인재’가 6개 학교, ‘창의 인재’가 7개 학교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의 모습은 ‘글로벌 인재’나 ‘실무형 인재’, ‘창의형 인재’ 등으로 수렴하고 있다.

## 2. 발전목표 분석

### 1) 발전목표 분석에 사용된 어휘 목록

분석대상 대학들의 발전계획을 살펴본 결과, 모든 대학이 1개의 비전과 1-5개의 발전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발전목표 진술에 사용된 주요 단어 및 어휘의 합은 134개에 이르고 있다. 분석을 위해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휘들을 군집화 하였으며,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및 어휘를 추출하여 ‘분석어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된 단어나 어휘는 41개였으며,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4개만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발전목표 분석에 사용된 어휘 목록

분석용어	실제 발전목표에 사용된 어휘	분석용어	실제 발전목표에 사용된 어휘
글로벌	국제화, 글로벌, 국제 교류, 세계 개척, 세계를 향한, 세계적 시야, 세계화 등	국내 상위권 대학	국내 3대(5대, 10대, 15대), 국내 상위권, 국내 상위 10%(20%, 30%), 국내 최고 등
특성화	특성화, 도시가치 창조, 체육 특성화, 벤처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수준	세계 10대(30대, 50대, 100대, 200대 등) 세계적 수준, 세계 최고, 세계가 선호하는
인재육성	인재육성, 전문인 양성, 지성 공동체 구축	지역사회협력	지역사회협력, 지역산업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역발전, 지역중심, 지역혁신, 지방분권 등
명문대학	명문대학, 명품대학 등	교육역량강화	교육역량 강화, 외국어 역량 강화
지역거점	지역거점, 지역 최고, 부산 3위권 등	경쟁력강화	경쟁력 강화(확보), 인지도향상, 선호도 향상
실무중심	실무중심, 실용중심, 실용인 육성, 실천인재	교육중심	교육중심



## 2) 발전목표 어휘 분석

국내 대학의 발전목표 진술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어휘는 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31.1%)’ 관련 어휘였으며, 연구중심 대학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30% 이상의 출현 비율을 보였다. ‘세계적 수준’ 어휘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66.7%)과 준연구중심 대학(46.7%)에서 상당히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반면, 교육연구병행 대학(25.0%)과 교육중심 대학(12.9%)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재육성’ 어휘는 교육연구병행 대학(21.4%)과 교육중심 대학(32.9%)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연구중심 및 준연구중심 대학 중에서 이 어휘를 사용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표 10> 국내 대학의 발전목표에 사용된 어휘 분석

(단위: 대학 수, %)

구 분	대학 유형				계
	연구중심	준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	
글로벌(국제화)	1 (11.1)	7 (46.7)	9 (32.1)	21 (30.0)	38 (31.1)
국내상위권대학	2 (22.2)	5 (33.3)	10 (35.7)	19 (27.1)	36 (29.5)
특성화	0 (0.0)	4 (26.7)	7 (25.0)	21 (30.0)	32 (26.2)
인재육성	1 (11.1)	0 (0.0)	6 (21.4)	23 (32.9)	30 (24.6)
세계적 수준	6 (66.7)	7 (46.7)	6 (21.4)	9 (12.9)	28 (23.0)
명문대학	0 (0.0)	3 (20.0)	5 (17.9)	16 (22.9)	24 (19.7)
지역사회협력	0 (0.0)	2 (13.3)	8 (28.6)	13 (18.6)	23 (18.9)
교육역량강화	2 (22.2)	3 (20.0)	3 (10.7)	13 (18.6)	21 (17.2)
지역거점	0 (0.0)	2 (13.3)	4 (14.3)	15 (21.4)	21 (17.2)
경쟁력강화	0 (0.0)	4 (26.7)	5 (17.9)	8 (11.4)	17 (13.9)
실무중심	0 (0.0)	0 (0.0)	3 (10.7)	14 (20.0)	17 (13.9)
교육중심	0 (0.0)	0 (0.0)	4 (14.3)	11 (15.7)	15 (12.3)
연구역량강화	1 (11.1)	2 (13.3)	4 (14.3)	8 (11.4)	15 (12.3)
연구중심대학	3 (33.3)	2 (13.3)	1 (3.6)	0 (0.0)	6 (4.9)
전체 대학 수	9	15	28	70	122 <sup>2)</sup>

그런데 발전목표에 대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비전에 대한 분석 결과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학 간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출현 빈도가 비전

2) 126개의 분석대상 대학 중 4개 대학(준연구중심 대학 1개, 교육중심 대학 3개)의 발전계획에는 발전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목표에 대한 분석에는 이들을 제외한 122개 대학만이 포함됨.

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향하는 상대적 지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1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상위권 대학’이나 ‘세계적 수준’, ‘명문대학’, ‘지역거점’ 대학, ‘아시아 상위 수준’ 등과 같이 대학 간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발전목표 어휘들을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수는 66개(54.1%)로, 비전에 대한 분석 결과(42.9%)와 비교할 때 약 11% 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11> 발전목표에 대학의 상대적 지위와 관련된 어휘를 사용한 대학

(단위: 대학 수, %)

구분	연구중심	준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	계
사용 대학 수	6 (66.7)	8 (53.3)	16 (57.1)	36 (51.4)	66 (54.1)
전체 대학 수	9 (100.0)	15 (100.0)	28 (100.0)	70 (100.0)	122 (100.0)

특히, 비전에 ‘국내 상위권 대학’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은 10.3% 정도였으나, 발전목표에 서는 그 비율이 29.5%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전의 경우 ‘국내 10위’나 ‘국내 30위’와 같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13개 대학 중 6개 정도(46.2%)에 불과하였으나, 발전목표에서는 36개 대학 중 28개 대학(77.8%)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 수준’ 어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비전의 경우 전체 126개 대학 중 22개 학교(17.5%)에서 ‘세계적 수준’ 어휘를 사용한 반면, 발전목표에서는 28개 대학(23.0%)으로 6개 대학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전에서 구체적인 목표 순위를 제시한 대학은 22개 중 7개 대학(31.8%)에 불과하였으나, 발전목표 분석에서는 28개 대학 중 15개 대학(53.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성화’나 ‘지역사회 협력’, ‘교육역량 강화’, ‘연구역량 강화’ 등과 같이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어휘들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비전에서 ‘특성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10개(7.9%)에 불과하였으나, 발전목표에서는 그 수가 32개(26.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중심 대학을 제외한 세 개의 대학 유형 모두에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협력’과 관련된 어휘들의 경우 변화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비전에서 ‘지역사회 협력’이나 ‘발전’을 언급한 대학은 4개(3.2%)에 불과하였으나, 발전목표에서는 23개 대학(18.9%)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육역량 강화’와 ‘연구역량 강화’ 등과 같은 어휘들은 발전목표 진술문에 새롭게 추가된 어휘들로, 전체 대학의 10-20%가 이들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발전목표 진술 방법 및 순위목표 현황

발전목표는 각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방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1-5개 정도의 다양한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에 대한 분석과 같이 몇 가지 항목으로 내용을 유목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목표의 진술방식을 먼저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각 진술방식 별로 어떠한 내용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1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내 대학의 발전목표 진술 방식은 단일목표 제시형과 병렬적 목표 제시형, 단계적 목표 제시형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일목표 제시형은 대학의 발전목표를 하나의 문장이나 어구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병렬적 목표 제시형과 단계적 목표 제시형은 두 개 이상의 발전목표를 포함하는데, 전자는 복수의 서로 다른 발전목표들을 단순 나열하는 반면, 후자는 시간의 흐름이나 발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 ‘산학협력 강화’ 등과 같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발전목표를 단순 나열하는 경우, 이를 병렬적 목표 제시형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발전목표의 구체적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거나, ‘국내 10대 대학’, ‘아시아 10대 대학’, ‘세계 10대 대학’ 등과 같이 점차 발전되는 형태로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단계적 목표 제시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12> 국내 대학의 발전목표 진술 방식

(단위: 대학 수, %)

구 분	연구중심	준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	계
단일목표 제시	3 (33.3)	2 (13.3)	9 (32.1)	25 (35.7)	39 (32.0)
병렬적 목표 제시	3 (33.3)	8 (53.3)	15 (53.6)	35 (50.0)	61 (50.0)
단계적 목표 제시	3 (33.3)	5 (33.3)	4 (14.3)	10 (14.3)	22 (18.0)
전체 대학 수	9 (100.0)	15 (100.0)	28 (100.0)	70 (100.0)	122 (100.0)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대학의 절반 정도(50.0%)는 병렬적 형태로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일목표 형태(32.0%)와 단계적 목표 형태(18.0%)가 뒤를 이었다. 이를 대학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연구중심 대학과 준연구중심 대학은 단계적 목표 제시형이, 교육연구병행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에서는 단일목표 제시형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발전목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단계적으로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대학일수록 구체적인 순위목표를 제시하는 대학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3〉 발전목표 진술방식 별 순위목표 제시 현황

(단위: 대학 수, %)

구 분		연구중심	준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	계
순위 목표 제시 현황	단일목표 제시	1 (16.7)	1 (12.5)	4 (25.0)	10 (27.8)	16 (24.2)
	단계적 목표 제시	3 (50.0)	5 (62.5)	4 (25.0)	10 (27.8)	22 (33.3)
	소계	4 (66.7)	6 (75.0)	8 (50.0)	20 (55.6)	38 (57.6)
발전목표에 상대적 지위와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 수		6 (100.0)	8 (100.0)	16 (100.0)	36 (100.0)	66 (100.0)

〈표 13〉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발전목표에 대학 간 상대적 지위나 순위를 의미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66개 대학 중 38개 대학(57.6%)이 ‘10위권’, ‘30위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순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적 형태로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대학의 비율이 높았던 연구중심 대학(66.7%)이나 준연구중심 대학(75.0%)일수록 구체적인 순위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표 12〉에 제시된 ‘단계적 목표 제시형’ 대학의 수와 〈표 13〉에 제시된 단계적 순위목표 제시형 대학의 수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모든 대학들이 순위 형태로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계적인 순위목표’ 제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우선, ‘지역 00위권 대학’, ‘국내 00위권 대학’, ‘세계(아시아) 00위권 대학’ 등과 같이 시간 흐름에 따라 대학의 종합 순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가는 형태가 있다. 다른 하나는 ‘10개 분야 세계 00위권’, ‘30개 분야 세계 00위권’, ‘50개 분야 세계 00위권’ 등과 같이 특정 학과 혹은 학문분야의 상대적 순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가는 발전목표 제시 형태가 있다.

### 3. 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과 발전목표의 관계

대학발전계획에 제시된 비전은 각 대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핵심지표로써 제시되는 것이 발전목표이다. 따라서 비전과 발전목표는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Bryson, 2004; Allison & Kaye, 1997; Koteen, 1989). 이 하에서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전목표에 주로 어떠한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대학들의 비전과 발전목표가 과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비전 진술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어휘 7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비전에 각각의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만을 추출하여, 발전목표 진술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어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표 14〉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전 진술에 사용된 어휘들이 발전목표 진술에

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들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전에 ‘글로벌(국제화, 세계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 52개 중, 발전목표에도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은 모두 21개 학교(40.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많은 대학들이 비전과 발전목표를 연계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4> 국내 대학의 비전과 발전목표의 관계 분석

(단위: 대학 수, %)

구 분	비 전							전체 대학
	글로벌	인재육성	세계수준	명문대학	교육중심	선도대학	실무중심	
글로벌(국제화)	<b>21(40.4)</b>	9(20.0)	7(31.8)	6(28.6)	5(33.3)	2(13.3)	4(26.7)	38(31.1)
인재육성	12(23.1)	<b>11(24.4)</b>	2(9.1)	7(33.3)	6(40.0)	3(20.0)	6(40.0)	30(24.6)
세계적 수준	11(21.2)	4(8.9)	<b>14(63.6)</b>	5(23.8)	4(26.7)	6(40.0)	2(13.3)	28(23.0)
명문대학	11(21.2)	10(22.2)	5(22.7)	<b>6(28.6)</b>	2(13.3)	2(13.3)	1(6.7)	24(19.7)
교육중심	8(15.4)	8(17.8)	1(4.5)	2(9.5)	<b>5(33.3)</b>	5(33.3)	1(6.7)	15(12.3)
국내 상위권 대학	14(26.9)	14(31.1)	10(45.5)	6(28.6)	4(26.7)	<b>8(53.3)</b>	4(26.7)	36(29.5)
실무중심	7(13.5)	9(20.0)	1(4.5)	1(4.8)	3(20.0)	2(13.3)	<b>6(40.0)</b>	17(13.9)
연구중심	2(3.8)	1(2.2)	6(27.3)	2(9.5)	0(0.0)	2(13.3)	0(0.0)	6(4.9)
지역사회 기여	11(21.2)	11(24.4)	2(9.1)	3(14.3)	4(26.7)	3(20.0)	5(33.3)	23(18.9)
특성화	15(28.8)	16(35.6)	6(27.3)	5(23.8)	2(13.3)	6(40.0)	4(26.7)	32(26.2)
전체 대학 수	52	45	22	21	15	15	15	122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비전과 발전목표가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비전 진술에 사용된 어휘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계적 수준’이나 ‘명문대학’, ‘국내 상위권 대학’ 등의 목표 어휘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비전에 포함된 어휘가 ‘인재육성’이나 ‘교육중심’, ‘실무중심’ 등으로 달라지더라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발전목표에 ‘국제화’나 ‘세계적 수준’, ‘국내 상위권 대학’ 등과 같은 어휘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인재육성’이나 ‘교육중심’, ‘실무중심’ 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행위 목표들이 제시되어야 할 자리에, ‘세계적 수준’이나 ‘명문대학’, ‘국내 상위권 대학’ 등과 같은 대학 간 상대적 지위를 의미하는 발전목표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전에 ‘교육중심’ 대학이 언급되었을 경우, 발전목표는 ‘국내 최고의 교육중심 대학 육성’이나 ‘세계 수준의 교육중심 대학 육성’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비전에 ‘실무중심’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경우에도 ‘실무중심 명문대학’이나 ‘실무중심의 지역거점 대학’ 등과 같은 형태로 발전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둘째, 목표진술에 ‘특성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32개 대학의 진술 방식을 살펴보면, ‘무엇을 통해’ 특성화를 하고자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대학은 13개(40.6%)에 그치고 있다. 반면, 15개의 대학들(46.9%)은 특성화 영역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 ‘특성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대학의 상대적 지위나 경쟁력 확보에 보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대학(12.5%)은 ‘특성화’라는 어휘만을 제시하고 있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표 15> 발전목표에서의 ‘특성화’ 진술 방식

진술 방식	세부적인 어휘 종류	대학 수
특성화 영역이나 방법 제시	복지특성화, 생명공학·나노·신소재·기계항공 특성화, 지역전략산업분야 특성화, IT명문, 산학협력을 통한 특성화, 융복합 브랜드 통한 특성화 등	13
특성화를 통한 상대적 지위획득	전국 최고 수준의 특성화 대학, 특성화 명문대학, 국내 상위권 특성화 대학, 특성화를 통한 00지역 제1의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15
단순 ‘특성화’	특성화	4

한편, 정보공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대학들은 2008년부터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학교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학교특성화계획도 함께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발전목표에 ‘특성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 32개 대학의 학교특성화계획을 살펴본 결과, 발전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화’ 진술과 학교특성화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화 진술이 일치하는 대학은 5개(15.6%)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27개 대학들은 학교발전계획에 제시된 ‘특성화’ 목표와 학교특성화계획에서 제시하는 ‘특성화’ 목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내용이나 형식의 특성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 의

### 1. 대학발전계획 수립의 제도화

2007년에 정보공시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모든 대학들은 2008년부터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발전계획이나 특성화계획의 수립 여부가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정보공시법이 제정되면서 각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자체가 제도화 되었다. 더욱이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자체평가규

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 공시항목을 기본 필수 평가대상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정보공시법 제6조 제1항'에는 각 대학의 발전계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발전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규정 때문만은 아니다. 대학들 중에는 제도적 규정과 별개로, 학령인구의 감소나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감소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남경현, 2011; 허민, 2011; 윤석만, 2010). 더욱이 대학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여부와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국내 대학들의 발전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 강제적 동형화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서는 대학 간 벤치마킹을 통한 모방적 동형화 현상도 충분히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대학발전계획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어휘들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은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학 간의 모방적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 2. 비전 및 발전목표의 동형화

비전과 발전목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대학들의 발전계획에 포함된 비전과 발전목표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국제화, 세계화)'과 관련된 어휘들이 절반에 가까운 대학들의 비전과 발전목표에 출현하고 있었으며, '세계적 수준'이나 '국내 상위권 대학', '명문대학' 등 대학 간 상대적 지위를 의미하는 어휘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인재육성'이라는 어휘와 함께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주로 교육연구병행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어휘는 비전보다 발전목표 진술에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전과 발전목표의 교차분석 결과 비전에 관계없이 발전목표 진술에 '특성화' 관련 어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전계획 상의 비전과 발전목표에 나타나는 이러한 주요한 특징들은 대학 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동형화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 1) 글로벌 대학 추구

절반 이상의 국내 대학들이 비전이나 발전목표에 ‘글로벌(국제화, 세계화)’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회적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평가지표에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언급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실제로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이나 연차평가 과정에 대학의 국제화 여건 및 성과 지표들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9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의 하나로 각 대학의 국제화 성과(5%)가 포함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그리고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경우, 연차평가 점수 중 6% 정도가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성과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0). 정부가 2011년에 실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 과정에서도 8개의 평가 지표 중 대학의 ‘국제화’ 성과가 포함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구조개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이러한 평가지표에 국제화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국제화 성과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대학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 순위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화 역량 지표들을 들 수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전체 400점 만점 중 70점이 대학의 국제화 관련 지표이며, 조선일보와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하는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도 대학의 국제화 역량에 10% 정도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대학 순위평가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화 성과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심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비전이나 발전목표에 ‘글로벌’이나 ‘국제화’, ‘세계화’ 등의 어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정부나 대학 순위평가의 평가지표 때문으로만 한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이나 정부 차원의 국제교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취업 지원자들의 국제화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제화 역량을 충분히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대학들에 보다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많은 국내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과의 학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제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대학들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비전과 발전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2) 대학 간 상대적 지위의 강조

비전과 발전목표 진술에 사용된 주요 어휘들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5개의 최빈 어휘 중 ‘세계적 수준’이나 ‘국내 상위권 대학’, ‘명문대학’ 등과 같이 대학 간 상대적 지위를 의미하는 어휘들이 2-3개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126개의 분석대상 대학 중 절반이 넘는 66개 대학이 대학 간 상대적 지위나 순위를 포함하는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발전목표에 구체적인 목표순위를 제시하고 있는 대학도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 간의 상대적 지위나 평가 순위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관심이 상당한 수준임을 의미하며, 그 결과 비전과 발전목표가 상대적 지위나 평가 순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동형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대학들의 이러한 관심은 ‘대학의 경쟁력’을 상대평가 순위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의 성과 기준에 ‘대학의 국제평가 순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재훈·김민경, 2011), 절대적인 평가 기준 대신 정부 대학평가 결과의 하위 15%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교육과학기술부, 2011a) 등은 대학의 상대적 순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이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비전 및 발전목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 역시 서로 다를 수 있다(하현봉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대학 순위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대학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내 많은 대학들은 각자의 상황이나 관심, 지향하는 비전과 발전목표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경쟁력을 평가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대학의 절대적인 질적 수준보다 상대적인 지위나 순위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들이 대학 간 상대적 지위나 순위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내·외 대학 순위평가 결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에 시작된 중앙일보의 국내 대학평가 순위는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THE-QS의 World University Ranking이나 중국 상하이 자이통 대학의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또한 국내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QS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대학 순위평가’가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대학 순위평가 시스템이 점차 제도화됨에 따라, 국내 대학들이 체감하는 순위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 또한 상당한 증가하였다. 많은 대학들이 순위향상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대학 순위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다(최훈길·안경숙, 2010).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정부나 국내·외 대학 순위평가에 의한 강제적 동형화 과정만으로 설

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대학 순위평가 결과가 상당한 주목을 받는 이유에는, 대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세영, 2011). 또한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 순위평가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경우 대학 순위에 대한 사회의 높은 관심은 학교 홍보나 자원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학 순위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기부액, 신입생 경쟁률, 졸업생 취업률, 대학의 평판 등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이세영, 2011). 이러한 이유로 국내 많은 대학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순위평가 결과들을 찾아 홍보 전략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도달하고자 하는 순위 목표를 다른 대학보다 높게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가진 잠재적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 또한 국내 대학들의 비전과 발전목표에 나타나는 상대적 지위 관련 어휘들의 동형화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3)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정형화

비전과 발전목표 진술에 사용된 어휘들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재육성'과 관련된 어휘들은 주로 교육연구병행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에서 나타났으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연구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학들임을 고려할 때, 비전과 발전목표에서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들 대학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글로벌 인재'나 '실무형 인재', '창의형 인재' 등으로 동형화되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많은 국내 대학들이 비전과 발전목표에서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인재육성을 강조하는 것은 안정적인 학생 유치를 위한 각 대학의 전략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한 취업 포털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생의 31.3%가 취업률을 보고 대학을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sup>3)</sup> 이러한 결과는 취업에 대한 걱정이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 기업들이 바라는 대표적인 인재상이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창의적인 인재' 등으로 수렴함에 따라(이홍표, 2009), 취업을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는 대학을 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의 비전과 발전목표에 제시된 인재상이 '글로벌 인재', '실무형 인재', '창의형 인재' 등으로 동형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일보(2011. 08.16). "대학생 3명 중 1명, 취업률 보고 대학 선택했다."

#### 4) '특성화' 노력의 확산

국내 대학들의 발전목표에 사용되는 주요 어휘들을 분석한 결과, '특성화' 어휘는 연구중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유형 모두에서 상당히 많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비전 진술에 사용된 어휘와 발전목표에 등장하는 어휘들의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전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특성화' 어휘의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많은 대학들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들이 '특성화'에 주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특성화 유도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대학 특성화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대학특성화 추진 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이석열, 2010; 교육인적자원부, 2005). 당시 정부는 대학의 특성화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했는데, '두뇌한국(BK) 21 사업'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이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까지 추진된 이들 사업들은 2009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이석열, 2010). 최근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에 '대학특성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학들이 '대학특성화알리미' 사이트<sup>4)</sup>에 각자의 특성화 관련 정보들을 공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각 대학들은 정보공시법에 따라 대학특성화계획을 비롯한 각종 특성화 관련 정보들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다양한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 사업들은 국내 많은 대학들이 특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성화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대학의 특성화 추진 노력은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 각 대학들의 비전과 발전목표에서 '특성화' 관련 어휘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강제적 동형화 현상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들을 정부의 특성화 유도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교 졸업자들의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최근에는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많은 국내 대학들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더욱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기반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신정철 외,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내 많은 대학들에게 있어 특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이석열, 2010). 만일, 대학의 특성화가 성공한다면, 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학생 충원율이나 졸업생 취업률 등이 향상되면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

4) 대학특성화알리미 사이트: <http://www.hiedumap.net/>

다. 실제로 '대학특성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 특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대학 홍보'와 '학생 모집률 및 취업률 향상'을 선택하였다<sup>5)</sup>. 다양한 외부 환경들의 변화와 특성화에 대한 대학 내·외부의 이러한 기대들로 인해, 특성화에 대한 대학들 스스로의 관심도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특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비전과 발전목표 간의 부정합화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외부의 강제적·모방적 압력들에 의해 국내 대학들의 비전과 발전목표들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각 대학의 비전과 발전목표 사이에서는 긴밀한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전을 통해 '인재육성'이나 '교육중심', '실무중심' 등의 보편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발전목표는 비전 실현을 위한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국내 대학들의 발전목표는 비전에서 사용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어휘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상대적인 지위나 목표 순위를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보공시법과 같은 외부의 강제적 압력과 대학 운영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상징적 순응(symbolic conformity)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 행동이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내적 의지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국내 대학들의 비전 및 발전목표에 나타나는 동형화 현상들은 변화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채택(active adoption)이라기보다, 외부의 강제적 압력과 대학 내부의 모방적 압력에 의한 의례적 채택(ceremonial adopt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Kostava & Roth, 2002).

결국, 대학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안에 포함된 비전과 발전목표는 대학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도입된 하나의 제도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정보공시법의 시행, 사회로부터의 공식·비공식적 압력, 학생 수 감소와 같은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실제 대학 내에서는 제도와 운영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부정합화 현상(Meyer & Rowan, 1977)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126개 4년제 일반 종합대학의 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과 발전목표의 특성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을 신제도주의적 동형화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5) [http://hiedumap.net/info\\_board/prgAmBoardList.jsp](http://hiedumap.net/info_board/prgAmBoardList.jsp)

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에 포함된 국내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대학들이 비전에 ‘글로벌’이나 ‘국제화’, ‘세계화’ 등의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전과 발전목표에서 ‘글로벌’ 관련 어휘를 한 번이라도 언급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54.8%(69개)에 이르고 있다. 국내 대학들이 이처럼 ‘글로벌(국제화, 세계화)’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평가 지표로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국내 대학평가나 조선일보·QS의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국제화 역량에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대학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외부의 강제적 압력들이 대학들로 하여금 ‘글로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취업 지원자들의 국제화 역량이 점차 강조되면서, 다른 대학들과의 학생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내 대학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국내 대학들의 비전과 발전목표에서 ‘글로벌’ 관련 어휘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은, 정부나 대학 순위평가 기관의 외부 압력에 의한 강제적 동형화 현상과, 생존 전략 차원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글로벌’을 강조하고 다른 대학들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모방적 동형화가 결합된 ‘복잡적 동형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비전과 발전목표에 사용된 어휘들을 분석한 결과, 상위 5개의 최빈 어휘 중 대학 간 상대적 지위나 순위를 의미하는 어휘들이 2-3개를 차지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대학들이 이들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지위나 순위 관련 어휘들의 출현 빈도는 비전보다 발전목표에서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각 대학들이 지향하는 상대적 지위보다 구체적인 순위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발전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대학들의 경우, 모든 대학들이 순위 형태로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대학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연구중심 및 준연구중심 대학들일수록 상대적 지위 및 순위 관련 어휘들을 더욱 자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중심 및 준연구중심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보다 지향하는 반면,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들은 국내 ‘명문대학’이나 ‘선도대학’,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등을 지향하고 있어, 지향하는 최종 순위목표가 대학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국내 대학들의 비전이나 발전목표에 상대적 지위나 순위목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을 순위평가 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국내의 대학 순위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등에 의한 강제적인 동형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정량화된 순위평가 결과를 대학 홍보나 학생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대학들의 모방적 동형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중심 및 준연구중심 대학 중 비전과 발전목표에서 ‘인재육성’을 언급하고 있는 대학

은 거의 없었다. '인재육성'과 관련된 어휘들은 주로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에서 사용하였으며, '교육'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 '글로벌 인재'나 '실무형 인재', '창의형 인재' 등으로 동형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재유형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이처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현상은 모방적 동형화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그대로 대학의 발전계획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취업을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고려한 각 대학들의 적극적인 학생유치 전략이 대학 간 경쟁과 모방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발전목표 진술에 사용된 어휘들을 분석한 결과, '특성화' 어휘는 연구중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많은 대학들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 사업이나 정보공시법과 같은 정부의 특성화 유도 정책과 관련이 깊다. 법에 의해 모든 대학은 특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추진 성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특성화 관련 정책들은 대학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이 특성화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을 강제적 동형화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 유치에 대한 대학들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특성화를 학생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 특성화는 학생 충원율이나 졸업생 취업률과 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 대학의 노력이 대학 특성화 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 대학들의 광범위한 '특성화' 노력은 대학 외부의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에 의한 강제적 동형화 과정과 대학의 자발적인 모방적 동형화 과정이 결합된 '복합적 동형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더하여,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비전과 발전목표의 한계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 많은 대학들은 상대적 지위나 순위를 사용하여 비전 및 발전목표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대학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비교적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 최고'나 '세계 10위권 대학' 등과 같이 상대적 지위나 순위로 제시된 비전이나 발전목표에는 대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이나 대학의 특성이 담겨있지 않다. 계획한 비전이나 목표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국내의 대학순위 평가에서 목표하던 순위에 도달했다는 것 외에는 대학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비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나 '세계 10위권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의 대학이며, 무엇을 추구하는 대학인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김성국, 2007; 신유근, 1992), 발전목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적인 행동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이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글로벌 인재'나 '실무형 인재', '창의형 인재' 등으로 수렴하고 있는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형화 현상이 안정적인 학생 유치를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학의 특성화와 차별화 또한 대학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연계하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보다 다양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중심 및 준연구중심 대학들은 비전과 발전목표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학의 특성 상 '연구성과'나 '연구역량강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관심이 교수들의 연구성과나 연구역량 강화에만 한정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대학들은 '교수들의 성과를 높여 세계 대학 순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은 분명히 교육이며, 연구조차 '교수들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중심 및 준연구중심 대학들은 각자가 추구해야 할 인재상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비전과 발전목표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비전과 발전목표의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많은 대학들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특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우선, 발전목표에 '특성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 중 절반 이상은 '구체적인 특성화의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특성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대학의 목표 순위나 상대적 지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특성화의 내용보다 도구적 가치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으로, 구체적인 특성화의 방향과 내용이 없을 경우 각 대학들의 특성화 논의는 형식적인 구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전이나 발전목표에 '특성화'를 담고자 하는 경우,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의 방향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발전계획'에 제시된 특성화 내용이 '학교특성화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대학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학교발전계획이 학교가 지향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학교특성화계획은 다양한 발전목표들 중 특성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발전계획에 포함된 특성화 관련 비전 및 발전목표와 학교특성화계획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a).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2011년 업무보고, pp. 26-36.
- 교육과학기술부(2010b).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900억원 투자. 보도자료(2010. 2. 17).
- 교육과학기술부(2010c). **대학특성화 종합정보 시스템 자료입력 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2011a).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 발표. 보도자료, 2011. 09. 05.
- 교육과학기술부(2011b). 201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대학 및 대학원용.
- 교육과학기술부(2009).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보도자료, 2009. 04. 17.
- 교육인적자원부(2005). 대학특성화 추진방안. 업무보고 자료.
- 김도희, 한 준(2005). 전문대학원 설립에서의 동형화 연구.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279-285.
- 김성국(2007). 대학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대 학교육, 145호**.
- 김현석(2003. 09. 07). 대학 발전계획 차별화 나선다. 한국경제신문.
- 김형석(2005. 03. 1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붓물'. 대전일보.
- 남경현(2011. 05. 31). 아주대학교, 교양교육-교수평가 강화해 도약 준비. 동아일보.
- 대학구조개혁위원회(2011).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류지성, 박용규, 배성오, 이갑수, 조희재(2006). **대학혁신-7대 유형별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박종렬(2007). 대학발전계획,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가. **대 학교육, 145호**.
- 박영기(2008). 대학발전계획 수립의 실제, **대 학교육, 151호**
- 박홍운(2007). 주요업무계획의 전략방향 진술형식과 일관성 분석, **한국공공관리 학보, 21(2)**, 57-85.
- 박홍운(2008).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비전에 대한 내용분석, **지방행정연구, 22(3)**, 31-67.
- 배준희(2011. 09. 12). 취업률에 울고 웃는 대학가. 머니투데이.
- 서울대학교(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37-284.
- 송기동(2010).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과제. **대 학교육, 16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유근(1992). 기업윤리와 경영 교육. 한국경영학회편, **한국의 기업윤리: 그 실상과 과제**. 서울: 세경사.
- 신정철, 김훈호, 박혜영, 심현기(2009).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영향 요인 분석: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8(4)**, 59-87.



- 신현석(2008). **대학유형별 발전추진 전략 연구: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유민봉(2010). **한국 행정학**. 서울: 박영사.
- 유호현(2010). 동형화의 틀로 본 성공전략. LG Business Insight, 1111호, 2-16.
- 윤석만(2010. 12. 14). 2010 학교탐방: 한양대학교. 동아일보.
- 윤석이(2005. 03. 10). 위기의 지역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마련 분주. 연합뉴스.
- 이석열(2010). 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 특성화와 대학 역량강화**, 59-66.
- 이세영(2011. 10. 10). 대학평가의 시대, 속물지배의 시대. 한겨레21.
- 이용균, 이기성(201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방향. **평생교육·HRD 연구**, 6(2), 165-185.
- 이재훈, 김민경(2011. 04. 15). 교과부, 대학서열 다툼 부채질. 한겨레신문.
- 이현정, 나민주(1997). **대학의 개혁과 미래: 대학 장기 발전계획의 비교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 이흥표(2009. 09. 03). 역량면접 속속도입, 채용 절차의 다양화. 한국경제매거진.
- 장덕호(2009). 대학입학사정관제 제도화 과정 분석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의 적용. **교육행정학연구**, 27(3), 121-144.
- 정명은, 박나라, 장용석(2009). 세계화 시대의 지역 브랜드: '표현'의 세계화, '의미'의 지방화. **지방행정연구**, 23(4), 251-279.
- 차대운 (2006). 대학경영자의 역할과 인적자원중심의 대학 발전전략, **인적자원관리연구**, 13(1), 183-198
- 최훈길, 안경숙(2010. 09. 20). 획일적 줄세우기 대학평가 반발. 미디어오늘.
- 하연섭(2011).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 하현봉, 변용환, 전태영(2011). 다양한 대학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원배분. **경영교육연구**, 26(2), 517-545.
- 한국연구재단(2010).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5차년도 연차평가 기본계획(안).
- 허민(2011. 06. 02). Re-start로 존재감 각인, 세계 100대 대학 만들 것. 문화일보.
- 홍경환(2011. 10. 13). 글로벌 아니면 대학도 죽는다. 아시아투데이.
- McCormick, A. C., and Zhao, C. (2005). Rethinking and Reframing the Carnegie Commission. *Change*, 37(5), 50-57.
- Allison, M., and Kaye, J. (1977), *Strategic plann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N.Y: John Wiley & Sons, INC.

- Bailey, K. D. (1994). *Typologies and Taxonomies: An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Techniques*.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Inc.
- Bryson, J. M. (2004). *Strategic planning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 guide to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organizational achieve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ill, L. (2000). Leadership as collective genius. In Chowdhury, S. (ed), *Management 21c* (pp. 45-65). Financial Times Prentice Hall Publishing.
- ISCED (2006).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in Education*. UNESCO.
- Kostova, T., and Roth, K. (2002). Adoption of an organizational practice by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stitutional and relational effec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1), 215-233.
- Koteen, J. (1989). *Strategic management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 N.Y.: Praeger.
- Locke, E. A. (1968). Toward a theory of task-motivation and incentiv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157-189.
- Meyer, J. W., and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340-363.
- Moodie, G. (2009). Four tiers. *Higher Education*, 58(3), 307-320.
- Liu, N. C. (2006). Classification of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6(7), 40-44.
- Dimaggio, P. J., and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Van Vught, F. A., Kalser, F., File, J. M., Gaethgens, C., Peter, R., and Westerheljden, D. F. (2010) *The European Clas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HEPS.
- Warren, D. H. (1994). *Blindness and children. An individual differences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접수 2011년 11월 9일 / 1차 심사 2011년 12월 5일 / 게재승인 2011년 12월 20일

\* 김훈호(Kim, HoonHo, 金訓鎬):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동일 전공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 kimhh@snu.ac.kr

\* 신철균(Shin, CholKyun, 申鐵均): 성균관대학교 중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기도에서 중등교사로 7년 동안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 E-mail : ckshin@kedi.re.kr

\* 오상은(Oh, SangEun, 吳祥垠):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기도 초등교사로 5년 동안 재직하였으며, 현재 휴직상태이다.

\* E-mail : cypruche@snu.ac.kr

\* 최혜림(Choi, HyeRim, 崔惠林):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에서 석사과정 학생으로 재학 중이다.

\* E-mail : flatm0120@naver.com

## Abstract

## Isomorphism of Vision and Development Goals in Development Plan of Korean Universities

Kim, HoonHo\*  
Shin, CholKyun\*\*  
Oh, SangEun\*\*\*  
Choi, HyeRi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vision and goals in the university development plans.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e research are interpreted in terms of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This paper analyzes 126 universities' development plans that were published in the academy information web site(<http://www.academyinfo.go.kr/>) in 2011.

First, the analysis shows that almost the half of universities in Korea use certain vocabularies such as 'global',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their vision and goals. This trend is interpreted as a combination of coercive and mimetic isomorphism driven by the government policy, indicators of domestic/international ranking system that emphasize 'global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and imitative exertions as survival strategies at university level. Second, the vocabularies that express the relative positions and rankings are frequently used in vision and goals, due to the following; government policy which finds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based on the ranking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anking system, and the marketing strategy of using the ranking goals to attract students by the universities. Third, vocabularies such as 'global talent', 'practical talent', and 'creative talent' are frequently used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specially in universities focusing on "education and research in parallel" and "education-oriented." Fourth, most of universities consider 'specialization' as a way to carry the vision due to the following; the mixed isomorphism driven by combination of the various policies that have encouraged 'specialized university' at the government level and voluntary efforts of the universities for attracting students and preoccupying comparative advantages for the government-funded program. Fifth, development plans, vision, and development goals, however, are one of the institutions adopted for

---

\*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st author

\*\* Research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Master's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ster's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universities' efforts and practical changes, the decoupling phenomenon can be seen between institution and implementation or vision and development goals.

Key words : development plan of university, vision, development goals, isomorphism, global, ranking goal, right people, specialization